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1976

/ 박혜미

천경자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돌아와 1년에 걸쳐 완성한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작가는 이 작품을 두고 “고독과 상념에 잠긴 채 코끼리 등에 엎드려 있는 나체 여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 덧붙였다.

천경자(1924-2015)는 ‘한(恨)’, ‘꽃’, ‘여인’이라는 소재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해 오늘날 한국 채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라남도 고흥 출생으로 본명은 천옥자. 그러나 그는 1941년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현 도쿄여자미술대학)에서 수학하던 시절부터 ‘천경자(千鏡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천경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성을 주제로 한 대표작을 다수 제작했다. 이 작품들은 작가의 변주된 자화상이라 볼 수 있다. 작품 속 다양한 여성상은 그 시절 그가 짊어지고 살았던 삶의 애환과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74년 아프리카로 떠난 여행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모아, 타히티, 인도, 중남미, 태국, 자메이카 등 28년 동안 12번의 그림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이 여행에서 이국적인 풍경과 자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화폭에 담았다. 그러나 긴 스케치 여행 속에서도 그는 ‘나’ 자신을 찾고 있었다. 낯선 풍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구한 것이다.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와 1년에 걸쳐 완성한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1976)도 그러한 작품이다.

드넓은 금빛 초원에 키가 작은 덤불과 메마른 나무들, 그 사이에 기린과 코끼리, 가젤과 사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얕은 구름 너머 저 멀리 있는 높은 산은 만년설로 덮였다. 석양이 드리운 아프리카 초원 풍경. 언뜻 평화로운 이 초원에 코끼리의 등에 올라타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불편한 자세

로 웅크려 있는 여인이 불현듯 등장한다.

천경자는 1974년 돌연 삶의 애환을 떨쳐내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다. 실패로 돌아간 첫 번째 결혼, 방랑벽이 있었던 두 번째 남자와의 사랑은 그녀의 삶을 슬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갔다.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는 천경자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린 49살의 자화상이다. 그는 작품 속 외로운 여인을 두고 "고독과 상념에 잠긴 채 코끼리 등에 엎드려 있는 나체 여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덧붙였다.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코끼리 등에 올라탄 여인은 상처받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은유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체의 여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통곡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그저 고되고 지쳐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삶의 고통과 싸우고 투쟁하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전설적인 설화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천경자에게 그 투쟁이란 언제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 작품을 발표한 이듬해 자신의 22살 시절을 그린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를 발표했다. 그리고 1978년 그의 작품에 두드러진 화려한 색채와 그 안에 깃든 슬픔과 어둠의 이야기를 담은 동명의 수필집『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을 출간했다.

갤러리현대는 1973년 천경자의 첫 개인전을 포함, 총 다섯 차례의 전시를 선보였다. 천경자와 갤러리현대의 인연은 화랑이 개관했던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4월 4일, 개관을 기념한 전시의 개막식에 천경자는 〈하와이 가는 길〉(1969)이라는 작품을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에게 선물로 건넨다. 1969년 신문회관에서 열린 천경자 전시를 보러 간 박명자는 6천 원이었던 작품 가격의 절반인 3천 원에 이 작품을 살 수 있는지 물었고, 단번에 거절당하고 말았다. 천경자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1년 후에 갤러리현대의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명자에게 선물하였다. 이 인연은 1973년 개인전, 1974년《아프리카 풍물화전》, 1980년《인도, 중남미 풍물전》으로 이어졌다. 2006년에 개최한《천경자-내 생애 아름다운 82페이지》는 뉴욕에서 병상에 있던 작가를 대신해 작가의 맏딸 이혜선과 갤러리현대가 전시를 진행하였고, 많은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루었다.

> "꿈을 꾼다. 선명한 총천연색이 무서워 거칠게 헐떡거리는 심장을 움켜쥐고 깨어나선 새벽을 기다린다. 그 새벽과 함께 커피를 끓여 마시며 나 혼자의 아침 향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곤 종일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릴 때에 한해서 나는 행복하다."1)

2015년 8월, 천경자는 그가 언제나 그리고 상상하던 영원과 환상의 세계로 떠났다. 그는 수많은 작품을 서울시에 기증했다. 꽃과 뱀, 여인의 화가,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언

제나 작품 안에서 살아 숨 쉴 것이다.

1) 천경자,『탱고가 흐르는 황혼』, 세종문고, 1995